

중국 물류 리포트

CHINA LOGISTICS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제14-18호

2014년 12월 31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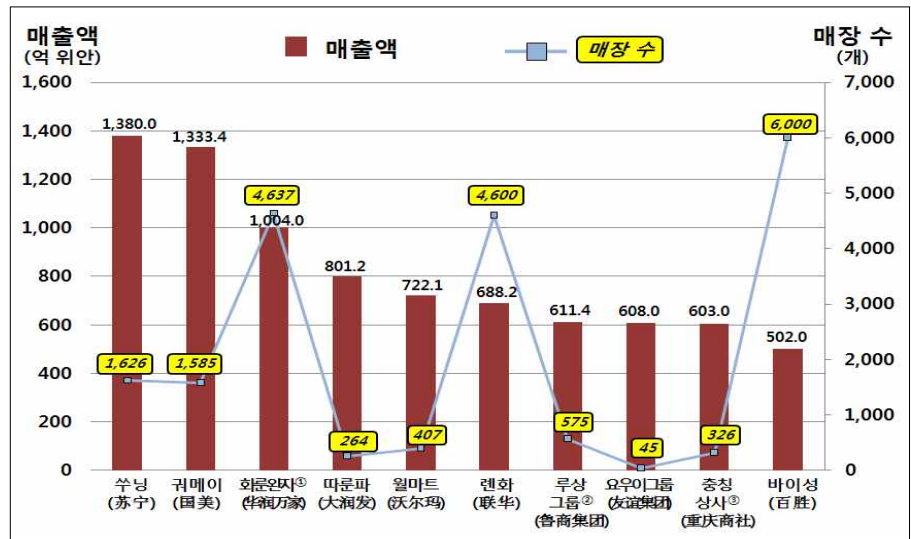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중국 물류 포커스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2013년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억 위안, %)

순위	기업	매출액	증가율
1	苏宁云商集团	1,380.0	11.3
2	国美电器	1,333.4	13.5
3	华润万家	1,004.0	6.7
4	康诚投资 (大润发)*	801.2	10.6
5	沃尔玛(中国)*	722.1	24.5
6	联华超市	688.2	0.2
7	鲁商集团	611.4	24.2
8	上海友谊集团	608.0	6.7
9	重庆商社集团	603.0	10.6
10	百胜餐饮集团*	502.0	-3.8
	합계	8,253.3	4.54

주: *은 외국계 기업 100대 유통체인
기업 총 매출액은 2조위안 돌파
자료: 中国连锁经营协会.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주: ① 화룬완자 매출액과 매장 수는 쑤궈마트(苏果超市)를 포함; ② 루상그룹은 인궈그룹(银座集团)을 포함; ③ 중청상사는 중청백화점(重庆百货)을 포함.
자료: 中国连锁经营协会(www.ccf.org.cn); KMI 작성.

2013년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매출액 8,253.3억 위안, 쑤닝그룹 1위

2013년 중국 10대 유통체인 기업의 매출 총액은 8,253.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4% 증가했고, 총 매장 수는 전년대비 220개 증가한 20,065개로 나타났다. 2013년 쑤닝그룹이 매출액 1,380억 위안으로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한편 2012년 3위를 차지한 귀메이전기(国美电器)는 매출액 1,333.4억 위안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화룬완자(华润万家), 따룬파(大润发) 등의 순이었다. 외국계 유통체인기업 중에서는 타이완의 대형 할인점 따룬파(大润发)가 전체 4위로 가장 높았으며, 월마트(전체 5위), 미국계 외식업체 바이성(百胜, Yum! Brands Inc.)(전체 10위), 까르푸(전체 11위)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계 기업 중에서는 롯데마트가 전체 공동 38위로 2012년 54위였던 완다(万达)백화유한공사와 동급을 이뤘다. 중국체인경영협회(CCEA)에 따르면, 2013년 중국 100대 유통체인기업의 매출 총액 증가율은 9.9%(2,040억 위안)로 2010년, 2011년 20% 이상의 증가율에 비해 둔화되었다. 2013년 새로 개장한 상점 수는 6,600 여 곳으로 총수는 약 9.5만 개에 달했다. 2013년 매출액 증가폭과 상점수 증가폭은 2012년 대비 각각 0.9%p와 0.4p 하락했는데, 이는 2013년 임대비 지출 11% 증가 및 인건비 18% 증가와 유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물류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물류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MI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채널기업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3	12-26
종합지수	1,098.37	1,044.99
일본 향로	794.36	642.94
구주 향로	1,507.15	1,273.61
미서부 향로	976.03	1,000.28
미동부 향로	1,181.88	1,381.80
한국 향로	628.69	674.85

주 : '01-03'은 2014년 1월 3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3	12-26
종합지수	1,238.94	904.62
석탄	1,302.33	933.09
곡물	1,215.94	742.31
금속광석	1,240.79	771.15
정유	1,229.50	1,215.40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중국 물류포커스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2014년 중국 물류업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물류 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으로 큰 이슈를 가져왔다. KMI 중국연구센터에서는 2014년 한 해 발생한 이슈 중에서 향후 중국 물류산업 및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 및 시사점을 줄 수 있는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를 선정해보았다. 5대 이슈는 ①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1주년과 새로운 자유무역구 지정, ②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③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④ 한중 FTA 실질적 타결, ⑤ 해운산업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발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상기 5대 이슈 외에도, 중국 정부의 「중장기 물류발전계획」 발표, 중국상무부와 국가표준위의 물류표준화계획 발표 등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2014년 기타 주요 물류이슈는 본문 5페이지 좌측 참고*).

1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1주년과 새로운 자무구 지정

2014년 9월 29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설립 1주년을 맞이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국제화, 시장화, 법제화를 목표로 4대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를 핵심으로 하는 투자관리제도 확립, 둘째, 무역편리화를 중점으로 하는 무역감독

[그림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자료 : 百度(www.baidu.com).

관리제도 안정적 운영, 셋째, 자본항목 태환과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금융혁신제도 기본 확립, 넷째, 정부직능 변환을 목표로 사중사후 관리감독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1년 동안 총 등록기업수는 12,266곳으로 그 중에 내자기업이 10,589곳이고 외자기업이 1,677곳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중국의 새로운 개혁 시험지역으로 삼아, 관련 성공적인 항목은 타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可复制、可推广)을 내세우고 있다.

2014년 12월 12일에는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로 텐진(天津), 푸젠(福建), 광둥(广东)이 지정되었다. 세 곳의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은 각 자유무역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텐진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의 협동 발전의 허브로서 보하이만(渤海湾) 경제권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푸젠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중시해 양안(两岸) 경제권의 무역 편리화를 실현하고 무역 촉진을 이룰 계획이다. 광둥은 홍콩·마카오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지역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연동을 통해 비즈니스 발전과 금융 개혁개방을 이끌 계획이다.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화 및 개방화를 이끌고 성공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해 중국 개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상기한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그동안 개혁한 제도를 수용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제도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¹⁾

2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로라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로라인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실크로드경제벨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7일에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처음 제시했다. 21세기 해양실크로드는 같은 해 10월 3일에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개념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장수성(江苏)·산둥성(山东)·톈진시(天津)에서 허베이성(河北) 간쑤(甘肃)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위구르 지역(新疆) 등 동부연안에서 서부대개발 지역을 망라하고,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동아시아를 포함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석유수송로와 겹치는 지역으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그림 2] 일대일로(1帶1路) 개념도



자료 : 2014 KMI 연운항 중국지역물류세미나 자료

중국은 2014년 일대일로 정책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10월 24일에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수립하여 자본금 1,000억 달러 중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4년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 출연을 발표하고 연이어 최소 50억 위안 자본금 규모의 해상실크로드은행을 설립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런 자본금은 주로 인프라 건설과 물류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운항~정저우~시안~란저우~우루무치까지 관통하는 중국횡단철도(TCR)의 향후 역할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지역이 이미 물류 거점지역이나 국가급 신구로 지정되어 일대일로 정책으로 도시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해양실크로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광둥~푸젠~저장~상하이~산둥~톈진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이미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이 되었거나 해양경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개발계획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중국 내 변방의 지역과 주변국가를 연계 발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²⁾

¹⁾ 관련 내용: '중국물류리포트 14-11호', "중국 물류 포커스,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1년: 통관제도 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중국물류리포트 14-15호', "중국 물류 동향: 톈진-광둥-푸젠 제 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상무부 방안 제정 협조"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3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2014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250억 달러를 모집하여 전자상거래 붐을 일으켰다. 특히 2014년 11월 11일 싱글데이 하루에 10조 1,890억원의 매출기록을 보이며 중국 전자상거래 비전을 보여줬다.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교역액)은 전년대비 29.9% 증가

한 10.2조 위안으로, 그 중 B2B 교역액은 8.2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했고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약 80.4%를 차지했다. 2014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3.4조 위안으로 예상되며 그중 B2B 규모는 11.3조 위안에 달한다. 2013년 중국 온라인 쇼핑(소매) 시장 교역액은 전년대비 42.8% 증가한 약 1.9조 위안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및 B2B 교역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B2C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텐마오(天猫) (50.1%), 징둥상청(京东商城)(22.4%)과 3위인 수닝이거우(苏宁易购)(4.9%)는 점유율 차이가 크다. B2B의 경우, 알리바바(阿里巴巴)가 시장점유율 44.5%를 차지하면서 2위인 위더티에강(我的钢铁)(10.6%)와 33.9%의 차이를 보이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해외 온라인 쇼핑도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해외구매대행 시장은 2008년 24.1억 위안에서 2013년 767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2008~2013년) 99.8%를 기록했으며, 2014년 1,549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정상선언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상거래 혁신 및 발전 이니셔티브 촉진과 관련 연구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중국과 아태 지역 국가 간 전자상거래 발전이 예상된다.³⁾

[그림 3]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료 : 百度(www.baidu.com).

4 한중 FTA 실질적 타결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기간 동안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되었다.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과

[그림 4] 한중 FTA 실질적 체



자료 : <http://www.fta.go.kr/>

2) 관련 내용:

3) 관련 내용: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채널기업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국무원, 중장기물류발전계획 발표
- 상무부, 비즈니스물류발전촉진 실시 의견 제시
- 알리바바와 징둥 미국 상장, 전자상거래 중국 빅이슈
- 중국 도시간 물류 발전 촉진 정책 실시 및 표준화 추진
- 중국 내 해외직구 열풍, 해외직구 물류 관련 산업 발전
- 물류 4.0 중국 물류 인터넷 시대 개막
- 중국 친환경 보관 및 배송 행동 계획 정식 가동
- 스마트화와 자동화의 물류기술 장비 수준 제고
- 중국 전국 물류 대전략 초보적 확립, 일대일로 큰 관심
- 중국 상무부와 국가표준위 연합으로 물류표준화계획 발표

자료 : 물류신문(物流新闻), "2014년 중국물류산업 10대 사건"의 관련 기사 참고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의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30개월만에 실질적 타결을 이루게 되었다.

한중 FTA 발효 즉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 달러 상당의 관세가 철폐되며, 10년 내에 458억 달러 상당의 수출품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서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 제품(의약품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어,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對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⁴⁾

5 해운산업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발표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은 2014년 10월 31일에 『해운산업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이하, 해운의견)』을 발표했다. 해운의견에서는 해운업이 경제사회발전에서 중요한 기초산업 지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운강국구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해운의견을 관철한다고 명시했다. 해운의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안전, 편의, 효율성, 친환경 등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현대적 해운 시스템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림 5] 물류업 관련 사진



자료 : 百度(www.baidu.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현대화 해운선대 구축, 2) 시장주체구조 최적화, 3) 현대적 항운서비스업 발전, 4) 국제 항운센터 건설 가속화, 5) 항만의 편리화 추진, 6) 항만의 기초시설 건설 강화, 7) 항만 서비스 기능 시스템 개선, 8) 현대적 물류 발전 촉진, 9) 해운 개혁 개방 심화, 10) 신속한 세계 해운 네트워크 구축, 11) 해운 국제 경쟁력 제고, 12) 운송 협력 메커니즘 완비, 13) 주요 물자 운송 보장 강화, 14) 해운 안전 응급 보장 체제 수립, 15) 친환경 해운 시스템 수립, 16) 정책 및 법규 체제 개선, 17) 행정관리 서비스수준 개선, 18) 통합 개방을 통해 경쟁 위주의 시장체제 개선, 19) 해운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20) 정보화 수준 제고, 21) 인재 풀의 형성 강화, 22) 지도강화와 책임실현, 23) 해운 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기관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운의견과 더불어 항로법과 물류업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발표되면서 향후 중국 물류 산업의 개혁이 예상된다.

이창주 연구원 · 김범중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nishanghai@naver.com

4)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 체인기업
- ▶ 중국 물류 포커스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동향

경제 · 정책

- 중국 국무원 상해자유무역구 이외에, 텐진·푸젠·광둥을 제2의 자유무역구로 증설
- 중국 북부만경제권 경제일체화 추진, 해상 실크로드 공동 구축 계획
- 중국교통부, 일대일로, 징진지(京津冀), 장강 경제벨트를 2015년 3대 국가전략 선정
- 푸저우(福州) 자유무역구 중국대륙-대만 간의 합작시범구로 건설될 예정
- 상해자유무역구 주주권 투자자금, 국가자본 민영화본 외자 공동 참여
- 제2의 자유무역구 2015년 3월 전면 실시
- 국무원, 중국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조치 마련 확인, 용자 분야 확대 계획
- 중국 "해상실크로드" 계획 실시 가속
- 운임상승과 유가하락 CSCL(中海集运)에게 유리

해운 · 항만

- 양산항, 12월 23일 중국 국내 첫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착공
- 쓰촨성 이빈(宜宾)항, 첫 한일(日韩) 연결운송항로 개척
- 『항로법』 종합운송교통법률체제 개선에 중요한 의의 남겨
- 베이도우(北斗) 네비게이션 시스템 국제해사 영역 통항증 획득
- OOCL, 새로운 아시아 항로 개척 확정

- 상해 외교교 조선 처음 제조한 18,000TEU급 선박 진수
- CSCL(中海集运) 7,770만 위안 국가재정부로부터 보조자금 수령
- 텐진항 입출항 항로 복선화 방식 가동,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 진출입항 목표
- 창다오국제항운서비스센터 창다오항운발전연구원 설립 향후 5년 내 교역액 2조위안 목표
- 우송(吴淞) 크루즈 부두 2기 2015년 연속 개공 예정

종합 물류

- 칭다오~렌위강 철도건설 착공, 칭다오~상하이 4시간으로 축소 전망
- 다렌항과 선양철도국 철송복합 신모델 추진 계획
- 시노트란스 산둥~랴오닝 육해복합 Drop and pull 방식 운송항로 개통
- 중국 국가우정국 우정업 안전센터 베이징 설립
- 얼렌하오터-광저우 고속도로 광둥 구간 31일 개통
- 국무원 업무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우편업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발표
- 샤먼-선전철로와 광저우-선전철로 기차통행 예정
- 해관 첨단PAD기로 수출입화물 검사 실시
- 12월 26일 남방항공, 난장-시안 비행편 개설
- 12월 26일 창샤-관저우 비행편 직항 증설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동향 : 주요 동향

1 중국 국무원 상해자유무역구 이와에 텐진·푸젠·광둥을 제2의 자유무역구로 증설

2014년 12월 26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상무부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상해, 광둥, 텐진, 푸젠 등 4곳에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법정 행정 심사 비준 결정에 대한 조정을 설명하였다.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중국 국무원의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시행경험을 분석 및 보급하고, 광둥, 텐진, 푸젠 등 3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 중, 광둥자유무역시험구는 광저우난사신구(广州南沙新区), 선전첸하이서커우항구(深圳前海蛇口片区), 주하이 형친신구(珠海横琴新区) 등 3곳이 포함되어 있다. 텐진자유무역시험구는 텐진공항, 빈하이신구(滨海新区)가 포함되어 있다. 푸젠자유무역시험구는 평탄구(平潭区), 샤먼(厦门), 푸저우(福州) 등 배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범위는 루자췌이(陆家嘴), 진차오개발구(金桥开发区), 장강첨단과학기술원구(张江高科技园区) 등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모든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무역투자를 원활한 진행하기 위해,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4가지 법률의 행정심사 비준조항 12개를 수정할 예정이다. 그 중,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의 제6조, 제10조, 제20조;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의 제3조, 제13조, 제14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의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대만동포투자보호법(台湾同胞投资保护法)의 제8조 제1항 등 관련 법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자본투자관리, 서비스업 개방, 진행과정과 사후 관리·감독 등 개혁개방의 혁신조치의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푸둥신구의 지리적 우위점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광둥, 텐진, 푸젠은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시행경험과 서로 시행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상호 보완함과 동시에 개혁개방 조치 성과를 실행 가능하도록 확정할 수 있고, 전면적인 개혁을 더욱 깊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국무원 제74차 상무위원회는 이미 4대자유무역시험구 초안에 대하여 논의, 비준하였다. 하지만 초안에서 관련 법률조항을 수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였으며, 법률조항의 수정에 대한 표결을 거쳐 2015년 3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 : 人民网, 2014. 12. 26. >

2 중국 북부만경제권 경제일체화 추진, 해상실크로드 공동 구축 계획

12월 26일, 쑤저우(湛江)세관, 난닝(南宁)세관, 하이커우(海口)세관, 쑤저우(湛江)항(그룹) 주식유한공사, 광시북부만(广西北部湾)국제항무그룹유한공사, 하이난항(海南港)항주식유한공사, 국투옥랑(国投裕廊)양향만유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기업은 쑤저우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향후 환북부만지역의 항만경쟁·협력발전을 공동 추진할 것을 성명하였으며 환북부만지역경제 일체화 발전과 환북부만지역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전문가 토크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연선국가간의 경제무역왕래를 촉진하여 중남지역, 서남지역 및 화남지역의 물류발전을 견인할 것을 밝혔다.

협력의향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3개 지역 항만의 경쟁과 협력발전 추진, △ 지역통관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 연구, △ 중남지역과 서남지역과 연결하고 아세안지역으로 나아가는 수출입물류플랫폼 구축, △ 수출입무역의 서비스질 공동 제고, △ 수출입무역질서 공동 향상, △ 쑤저우, 난닝, 하이커우 세관 및 4개 항만기업을 포함한 7개 기관의 연락사업체제 등 6개 방면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협력의향서에 따르면, 쑤저우, 난닝, 하이커우 세관은 ‘소속지 신고, 통상구 검사·통관’, ‘소속지 신고, 소속지 통관’등 지역통관모델 활용도를 넓혀, 상품사전분류, 가격사전심사, 원산지 사전 확정 및 분류, 가격 등 전문인증결과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통일된 지역간 집법체제를 구축하여 3지역의 항만과 세관 감독·관리장소, 특수감독·관리구역의 통일된 정보화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금번 협력의향서의 체결은 향후 쑤저우항, 북부만항, 하이난항, 국투양푸항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산업추이를 분석하며 국제항운시장연구 및 무수항, 녹색저탄항만건설 등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컨테이너수출입직항항로 개발에 유리하고 3지역 항만간의 해철복합운송, 멀티복합운송서비스 발전가능성 개발에 유리하다. 3지역 항만은 향후 컨테이너항로 상호 정박, 멀티복합운송, 네트워크구도최적화 및 선진물류, 임항산업, 보세물류, 금융투자 등 분야에서 심층협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3지역의 선두항만기업간의 협력은 각 지역의 브랜드우세, 지역우세, 고객군우세, 통상구우세를 충분히 융합시켜 큰 발전협력전망을 보여주며 보다 넓은 발전 공간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동 3개 지역의 세관은 항만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양호한 통관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통고나서비스개혁의 좋은 결과는 종합물류효율과 기업의 수익제고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우세를 상호 보완하여 서남지역의 연해 국제물류 대통로의 개척과 환북부만지역의 물류와 개방형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2014년 쑤저우항, 북부만 항의 화물 물동량은 2억 톤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며, 하이커우항의 화물 물동량은 9,000만 톤, 양푸항의 화물 물동량은 3,400만 톤으로 4개 항만의 화물 물동량은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전국의 각 연해항만의 평균증가율보다 모두 높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쑤저우, 광시자치구, 하이난성은 서로 인접해 있는데 중국의 중남지역, 서남지역의 출해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관련 세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쑤저우, 난닝, 하이커우의 세관 수출입액은 5,83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되었다. 그 중, 수출액은 2,113.4억 위안으로 44.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3,717.6억 위안으로 증가율을 6.9%이다. 특히, 해상실크로드 연선 국가들 대상으로 수출입 증가율이 비교적 큰데, 1~11월 3개 지역의 세관이 ‘해상 실크로드’연선 국가 대상의 수출입액은 3,151.4억 위안으로 27.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대아세안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1,941.1억 위안으로 38.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자료 : 海关总署, 2014. 12. 29.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전문가 칼럼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3 양산항, 12월 23일 중국 국내 첫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착공

상해국제항운센터 양산심수항만 4기공정은 12월 23일 정식으로 착공되었다. 이 부두는 중국 국내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항만이 될 전망이다. 양산심수항만은 상해국제항운센터의 핵심 공사로서, 그 중 4기공정은 양산심수항만 1기~3기 공정의 연장선이다. 양산항 4기공정은 대략 총 139억 위안이 투입되며, 선석길이는 2,800m이다. 건설부두는 5개의 5만톤급, 2개의 7만톤 급 컨테이너 선석이다. 부두구조는 모두 15만 톤급 컨테이너선박이 접안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설될 예정이다. 작업선박 부두와 필요한 부대시설도 건설될 예정이다. 4기공정의 연통과능력은 630만 TEU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은 400만 TEU로 건설될 것이다. 항만 내륙지역은 동해대교의 남쪽으로 커쭈산도(颯殊山岛), 대소 우꾸이섬(乌龟岛)이 둘러싼 지역을 매워 건설되는 곳으로 평균 부두깊이는 500m정도이다. 전체 지면은 약 223.16만 m²로, 컨테이너 부두 작업기지, 항만의 도로 및 기반시스템 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양산항 4기공정 지역은 심수 선석 건설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두 앞의 자연수심은 대부분 11m~15m이고, 지역의 지질적 구조는 안정적이다. 항만지역내 연운행가능 일수는 315일 이상이다. 양산항 4기공정 계획은 이념, 선진기술운용, 운영관리모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을 지향하며, 충분한 국제선진 경험과 성숙된 기술을 기초로 고효율, 높은 신뢰성, 안전성, 높은 질, 기술선진의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로 건설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예정은 2017년이다. 이 경우, 상해항의 연 물동량은 4,000만 TEU를 돌파할 예정이다. "4,000만 TEU"는 미국 전역의 항구 물동량의 총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 국제 항만 총 물동량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 자료 : 上海证券报, 2014. 12. 26. >

4 쓰촨성 이빈(宜宾)항, 첫 한·일(日韩) 연결운송항로 개척

지난 10월 11일, 이빈(宜宾)항은 우한(武汉)항과 전략적 협력에 서명함에 따라 동반발전을 도모와 동시에 장강경제벨트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빈-우한-상해-일본과 한국 항로 개척을 통해 이빈항과 우한항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세계 각국 간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며, 이빈항의 대외개방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이빈항은 강장 시발항만으로 최초의 국제항로 개통을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 밝혔다.

또한 이빈-우한-상해-일본과 한국 항로 개척에 따라서 이빈항 컨테이너 정기선은 주 9.5 항차로 증가되었고,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물류원가를 절감하여, 주변지역과 연결을 통해 항만 서비스 파급 및 서비스 능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우한항은 중서부지역에 주요 항만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거래를 대대적으로 촉진시키며, 이빈과 우한등 지역을 수출 지향형 도시로 발전시킨다.

현재 이빈항은 장강황금수로 시발항만일 뿐만 아니라 중국서부지역의 주요항만으로 중국 "장강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인 기회를 틈타 이빈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빈항은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집화가 확대되었고, 정기선사는 7개로 증가되었으며, 주 9.5 항차를 운항하고 있다. 또한 CMA, MSC, OOCL, COSCO와 CSCL은 이빈항에 컨테이너 기지를 설립함과 동시에 장금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채안기업
- ▶ 전문가 토크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상선,한진해운,남청(南青),ZHONGGU SHIPPING(中谷新良)등 선사는 컨테이너 업무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빈항은 윈난(云南)성 수이푸항(水富港)과 협력을 통해 이지역 물류허브센터를 구축하고, 항만의 발전을 강화시키고 있다. 2014년에 이빈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만 TEU로 전년대비 99.5%의 성장을 기록했고, 장강지역 주요 컨테이너항만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四川新闻网, 2014. 12. 16. >

5 칭다오~렌윈강 철도건설 착공, 칭다오~상하이 4시간으로 축소

최근 칭다오~렌윈강 철도건설 착공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4년 후 준공 및 운영될 예정이다. 동 철도노선은 중국 '5종 5형'종합운송대통로의 남북연해운송통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써 전체 길이는 194.5km으로 산둥성 경내 길이는 186.6km, 장쑤성 경내 길이는 7.9km이며, 북쪽의 칭다오북역에서 출발하여 칭다오시, 르짜오시를 경유하여 남쪽의 장쑤성 렌윈강시 간위북역까지를 통과한다.

칭다오~렌윈강 철도노선은 중국 동부지역의 철도네트워크구도를 한층 최적화 및 완비할 것으로 기대하며 칭다오시가 장삼각 및 환발해지역에 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동자커우항구의 건설에 중요한 지원인프라를 제공해주며 나아가 산둥반도 블루경제구 건설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칭다오시에서 상하이시까지의 철도운송거리는 기존의 1,400km에서 800km으로 단축되며, 시간적으로는 기존의 7시간에서 4시간(시속 200km으로 계산)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동시에, 다른 주요 철도간선노선과 연결됨으로써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철도통로를 구축하여 항만간의 교류와 연락을 강화하고 동부 연해지역의 철송복합운송 구도를 완비하며 항만의 컨테이너 내륙운송능력 향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자료 : 青岛日报, 2014. 12. 29. >

6 다렌항과 선양철도국 철송복합 신모델 추진 계획

다렌항그룹컨테이너 소속 기업인 지이(集益)물류회사와 선양철로국 다렌화물운송센터는 공동으로 전략적 합작합의에 공동으로 체결하고 따야오만(大窑湾)지역물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다렌시가 "철로화물신속운송" 모델이 다렌항그룹이 선도적으로 설립하고 운행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렌항그룹 철송복합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로화물신속운송"은 선양철로국이 새로운 형세의 국내국제물류현황에 적응하기 위해 만든 신형물류서비스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존의 철로운송의 단점인 느린 속도와 번잡한 수속, 배송 시간 비준수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원을 종합하는 것을 통해 투명한 가격, 넓은 네트워크 공간 확보, 한 장 표로 수속 가능 제도, 정해진 시간내 운송 완료 및 저렴한 운임 등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철로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업무는 전국의 4,200개 화물특송 영업의 기차역을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지이(集益)물류회사는 철송복합운송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이미 야적,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10대 유통체인기업
- ▶ 전문가 토크
: 2014년 중국 물류산업 5대 이슈
- ▶ 중국 물류 동향

보관, 집하, 분배배송 등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과 자가 컨테이너트럭, 그리고 컨테이너 트럭연맹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배후지 화물에서 항만 편의, 빠른 배송, 낮은 운임등 컨테이너 집하 통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철로의 "최후 1km(Door to Door)"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철로운송의 원스톱 가능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양측은 다야오만 지역 물류서비스센터를 협력하여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공동으로 "철로화물특송" 모델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로, 항만 쌍방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철로화물특송은 신뢰도 높은 물류운송보장과 원스탑형 물류 서비스 해결 방안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中国海事服务网, 2014. 12. 30. >